Mussar of Parashat Chayei Sarah

Theme: A Life of Faithfulness, Kindness, and Lasting Legacy / 신실함과 인애, 그리고 영원히 남는 삶의 유산

Torah: Bereshith (Genesis) 23:1–25:18

Parashat Chayei Sarah, meaning “The Life of Sarah,” begins with her death. At first, this seems unusual. Why would a Torah portion devoted to Sarah's life begin by describing her passing? The answer reveals a profound spiritual lesson: the true measure of a person's life is not simply the number of years lived, but the faithfulness, character, and spiritual legacy left behind. Sarah's physical life comes to an end, yet her influence continues through Yitshaq, Rivqah,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

“사라의 생애”라는 뜻을 가진 파라샤 하예이 사라는 역설적으로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라의 삶을 다루는 토라 본문이 왜 그녀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참된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며 어떤 성품과 영적 유산을 남겼는가에 있습니다. 사라의 육체적인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이츠하크와 리브카,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When Sarah dies, Avraham mourns for her and then purchases the cave of Machpelah as her burial place (Genesis 23:2–20). Although Elohim had promised him the land of Canaan, Avraham does not demand the land as his immediate possession. Instead, he approaches the people of Heth with humility, negotiates openly, and pays the full price. His conduct teaches that trusting in the promises of YHWH does not excuse dishonesty, impatience, or disregard for others. True faith expresses itself through integrity, even when we believe something rightfully belongs to us.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하여 애도한 후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합니다(창세기 23:2–20). 엘로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내세워 당장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헷 족속에게 겸손하게 접근하여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그의 행동은 야훼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정직과 인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행동과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The story then turns to Avraham's servant, who is sent to find a wife for Yitshaq. At the well, the servant prays for guidance, asking that the appointed woman would offer him water and willingly draw water for his camels (Genesis 24:12–14). Rivqah fulfills this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츠하크의 아내를 찾기 위해 파견된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이어집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request without knowing who the servant is or what she might receive in return. Her kindness is not calculated to gain recognition or reward. It flows naturally from her character. The Torah therefore reveals that genuine chesed, loving-kindness, is demonstrated most clearly when we serve others without expecting personal benefit.

낙타들에게도 기꺼이 물을 길어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창세기 24:12–14). 리브카는 그 종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요청을 기꺼이 이루어 줍니다. 그녀의 친절은 인정이나 보상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토라는 이를 통하여 진정한 헤세드(chesed), 곧 사랑의 인애는 개인적인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Rivqah's willingness to draw water for ten camels also teaches that kindness often requires effort and sacrifice. She does not merely speak gracious words; she takes action. In Mussar, good intentions alone do not establish good character. Virtue becomes meaningful when it is practiced consistently, especially when doing good requires time, energy, and inconvenience. A generous heart is revealed not by what it promises, but by what it willingly gives.

리브카가 열 마리의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 주었다는 사실은 인애가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친절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였습니다. 무사르의 관점에서 선한 의도만으로는 훌륭한 성품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에 시간과 노력,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덕성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관대한 마음은 무엇을 약속하는가보다 무엇을 기꺼이 베푸는가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When Rivqah is asked whether she will leave her family and go with the servant, she responds, “I shall go” (Genesis 24:58). Her decision echoes Avraham's earlier obedience when YHWH called him to leave his homeland (Genesis 12:1–4). Both demonstrate the courage to move forward without knowing every detail of the future. Faith does not mean that uncertainty disappears. Rather, it means choosing obedience when the path ahead is not fully visible. Spiritual maturity requires both discernment and the willingness to act when the time comes.

리브카는 가족을 떠나 종과 함께 가겠느냐는 질문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창세기 24:58). 그녀의 결단은 야훼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창세기 12:1–4). 두 사람 모두 미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에는

올바른 분별력뿐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 기꺼이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츠하크가 리브카를 사라의 장막으로 맞아들이고 그녀를 사랑하며 어머니의 죽음 이후 위로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창세기 24:67). 이 장면은 슬픔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츠하크는 사라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세우는 데 기여한 언약의 가치를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를 존중한다는 것이 반드시 슬픔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배웁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을 가장 의미 있게 기리는 방법은 그들이 우리 삶에 심어 놓은 선함을 계속 이어 가는 것입니다.

The portion also records that Yitshaq brings Rivqah into Sarah's tent, loves her, and finds comfort after his mother's death (Genesis 24:67). This moment reveals that grief and renewal can exist together. Yitshaq does not erase the memory of Sarah; rather, he begins a new chapter while carrying forward the covenantal values she helped establish. The lesson is that honoring the past does not require remaining trapped in sorrow. We honor those who came before us most meaningfully by continuing the goodness they planted in our lives.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장수한 후 세상을 떠나고, 이츠하크와 이스마엘이 함께 그를 장사합니다(창세기 25:7–10). 토라는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언약이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의 모든 선택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사르의 핵심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미래의 모든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복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성품과 순종, 그리고 사랑의 인애를 길러 나가는 데 있습니다.

Finally, Avraham dies at a good old age, and Yitshaq and Yishmael come together to bury him (Genesis 25:7–10). The Torah closes this chapter of his life by showing that the covenant continues beyond his death. Avraham could not control every choice made by future generations, but he could live faithfully in his own generation. This is one of the central teachings of Mussar: our responsibility is not to control the future, but to cultivate the character, obedience, and loving-kindness that will bless those who follow us.

Core Mussar — 핵심 무사르

하예이 사라의 핵심 교훈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가 수명이나 재산, 세상적인 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The central lesson of Chayei Sarah is that a meaningful life is measured not by its length, possessions, or achievements, but by the faithfulness and kindness that

remain after we are gone. Sarah leaves a legacy of faith, Avraham demonstrates integrity, Rivqah reveals selfless chesed, and Yitshaq carries the covenant into the next generation. Together, their lives teach that spiritual greatness is formed through ordinary acts of obedience, generosity, and trust in YHWH. The greatest legacy we can leave is not what we possess, but the goodness we cultivate in others.

아니라,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아 있는 신실함과 인애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고, 아브라함은 정직함을 보여 주었으며, 리브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헤세드를 실천하였고, 이츠하크는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 갔습니다. 이들의 삶은 영적 위대함이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과 관대함, 그리고 야훼를 향한 신뢰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소유한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심어 놓은 선함입니다.